

민주 “국익 해친 강효상 제명·출당하라”

국가 위기 조장 범죄 총공세...국회 윤리특위 제소 검토 이해찬 “한국당 차원 조치 필요”...민생법·추경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한 것을 두고 거듭 맹공을 퍼부으며 대야 압박을 강화했다.

강 의원의 행위를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기밀 유출 범죄로 규정된 민주당은,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을 강한 어조로 맹비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취할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려하는 조치 중 하나로, (이것 역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강 의원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흔들려 놓았다”며 “정

말 잘못된 행동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약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취득 행위를 반복했다면 범죄를 넘어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규범과 질서보다 선후배간 사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시해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며 “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간 사실 케네션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한국당은 집권여당이 없다고 파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질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우려 민주당 정책대 전 의원은 한국당

이 자신도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몰타기 시도’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두 정상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 이외의 것은 없었다”며 “범죄의 문제를 표현의 문제로 덮으려고, 몰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복귀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다행히 한국당의 장외집회가 끝났다.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과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루 빨리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이번엔 ‘혁신위 갈등’

안계 “정병국 혁신위”...孫 “중립 인사”...劉계 “지도부 사퇴”

지도부 퇴진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다수 의원은 내홍 수습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위의 구체적 권한과 혁신위원장 문제 등을 놓고 당권파, 안철수계, 바른정당계 등 세 계파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혁신위 출범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설치를 제안했다. 혁신위가 내달 말까지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안을 내놓으면 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병국 혁신위”는 손 대표가 지난달 당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카드이기도 한 만큼 이른바 당권파도 이견 없

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며 “혁신위원장은 당의 비전을 실천하고 미래를 열어갈 인사,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 대표의 퇴진 문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정당계 역시 안철수계의 ‘정병국 혁신위’ 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선(先) 지도부 퇴진, 후(後) 혁신위 출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대표가 독단과 독선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찌당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며 손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빠진 국회 개원 기념식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기라운지

5·18 망언 의원 검·경 수사 촉구

최경환 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지난달 5·18 망언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담당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서면 조사만 할 방



침이라고 한다”며 “서면조사 요청도 두 달 가까이 눈치만 보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와 지만원이 북한 특수군 ‘광수73’으로 지목한 지용씨가 제기한 지만원 고소 사건도 지난해 6월 4일 경찰에 접수돼 작년 11월 26일 경찰에 송치되었지만 6개월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략통’ 김영진·이철희... ‘총선 기지’ 양정철 號 운곽

민주연구원 부원장 5인 선임...당정청 연결 백원우 역할 주목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27일 자신과 손발을 맞출 부원장단 5인의 선임을 마치면서 연구원의 총선 역할론이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근형 원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5명의 선임도 함께 재가했다. 부원장으로는 민주당 김영진·이재정·이철희 의원, 백원우 전 의원이 선임됐다. 이근형 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연직 부원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며 “양 원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해 고심 끝에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진용을 보면 양 원장이 ‘총선 병참기지’로 규정한 연구원의 역할과 좌표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전략통’이 포진했다. 민주당 선임 전략기획위원장이 이근형 부원장은 선거 컨설팅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정치기획 전문가로, ‘민주정부’가 세 차례 집권할 때마다 매년 당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정확한 여론조사 해석을 토대로 선거 전략을 제시, 압도적 승리에 기여한 ‘숨은 실력자’다. 이철희 의원은 양 원장과 절친한 사이로, 역시 20대 총선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전·현직 전략기획위원장 3명이 한꺼번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연구원이 총선 필수 전략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백원우 부원장의 경우 민주연구원에서 인재영입 실무에 적극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 원장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시스템에 의해 인재를 영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결국 실무는 양 원장과 백 부원장이 물밑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백 부원장이 문 대통령 참모로서 청와대와 내각 핵심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해온 만큼 원활한 당정청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내 기대도 존재한다.

전남 동부권 5개 지역위 핵심 당직자 연수

운영일 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위원장 운영일 의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 동부권 5개 지역위원회(여수갑, 여수을, 순천, 고흥·보성·장흥·강진, 광양·곡성·구례) 핵심당직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20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동영 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운영일(해남·완도·진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핵



심 당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하는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연수에 앞서 전남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도당 조직구성 의 건 등을 상정·결하는 등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남도당 조직정비 및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수가 끝난 뒤에는 전체 당직자들과 함께 보성군 울포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7 12point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414002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문의 1566-9988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간	오후 3시 ~ 6시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